

“지상파 직접수신을 높이는 UHD TV 전략 필요” 「시청자를 위한 DTV 자문회의」 워크숍에서 제기

「새로운 방송기술의 혜택 모든 시청자들에게 고루 돌아가야」



‘디지털 방송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지상파 플랫폼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지상파의 UHD TV 서비스와 700MHz 주파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청자를 위한 DTV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워크숍에서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온 지적이다. 지난 12일 김포공항 부근 메이필드 호텔 이원홀에서 개최된 ‘자문회의’ 워크숍 참석자들은 콘텐츠에 대한 대책이 없는 미래부 UHD TV 로드맵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숙명여대의 강형철 교수는 지상파가 차세대 방송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목적 제시가 필요하며 UHD TV에 대한 종합적이고 선명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기대의 김광호 ‘자문회의’ 의장도 새로운 기술발전의 편익을 모든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HD TV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어떠한 모양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지적하고 방송사마다 서로 조율하고 토론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희완 민연련 사무처장은 UHD TV가 단순히 화질만 좋아지는 것이라면 소외계층이나 일반 시청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우려했고, 강혜란 여성민우회 위원은 지상파가 주파수 논란에 휘말리게 된 이유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이므로 지금은 UHD TV나 MMS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수신율을 올리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회의’ 소속의 교수들과 시민단체에게 UHD TV와 700MHz 주파수 문제에 대한 지상파의 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KBS 박진우 미디어 정책부장이 “위기의 지상파! UHD TV 그리고 주파수”를 발제했고, MBC 김영석 기술관리부장이 “지상파의 UHD TV 도입 예산과 재원정책”, SBS 기술기획팀의 이상진 차장이 “지상파의 UHD TV 서비스와 주파수 정책”, EBS 디지털인프라부 홍대용 차장이 “UHD TV 해외동향 및 EBS 추진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2면 기사 참조)

DTV KOREA - 지방자치단체 수신환경개선 협력추진



DTV KOREA(사무총장 이정옥)과 여주군(군수 김춘석), 인천시 남구청(구청장 박우섭)은 자치단체 관내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지상파 직접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DTV KOREA 이정옥 사무총장과 조현국 기획홍보실장은 지난 8일 여주군, 11일 인천시 남구청과 각각 업무협의를 갖고 이 같은 협력 내용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지원 방안에 따르면 여주군과 남구청에서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공시청 설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자치단체 소식지와 공문서를 통해 공지하여 그 수요를 파악하고 DTV KOREA에 통보하면, DTV KOREA의 직접수신인프라팀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해당 주택의 공시청 시설을 설치한다.

DTV KOREA는 이번 업무 협의를 통해 여주군과 인천시 남구청 주민들이 무료로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미디어 복지를 확충하고 지상



파 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천 남구는 노후 건물 비율(30%이상)이 인천 전체(16%)보다 높기 때문에, 공시청 설비가 없거나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DTV KOREA는 현재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관악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영등포구청 등과도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협력대상 자치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자를 위한 DTV 자문회의」 워크숍 지상중계

지난 7월 12일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 호텔 이원홀에서 「시청자를 위한 DTV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워크숍이 개최됐다. 워크숍은 지난달 6월 14일 DTV KOREA에서 열린 '자문회의' 정기모임에서 방송통신학회 세미나에 참석했던 일부 교수들이 UHDTV와 700MHz 주파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습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기획된 것이다. 발표를 맡은 지상파 방송사 기술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은 시청자들의 편익 증진과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진화 발전 방향에 대해 장장 6시간 동안 애정 어린 비판과 의견들을 쏟아냈다. 이번호 사보에서는 지상파 활성화와 UHDTV, 700MHz 주파수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워크숍 발제 자료와 토론 요약문을 게재한다.



| 박진우[KBS 미디어 정책부장] 발제문



정부는 UHDTV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700MHz를 통신에 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모바일 광대토플랜'의 주요 내용을 실행하겠다는 것인데 광대토플랜은 오랑캐를 토벌하여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다.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이 쓰고 있는 700MHz를 통신사에 준다면 이동 통신을 살리기 위해 (오랑캐인) 지상파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빗물과 수돗물, 생수 등이 있는데 수영장을 생수로 채우자는 발상이다. 만약 미래부가 주파수를 부여하지 않아 지상파가 UHDTV를 포기한다면 우수한 콘텐츠의 생산과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활성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 이상진[SBS 기술기획팀 차장] 발제문



지상파는 UHDTV를 조기에 도입하여 시청자들의 편익을 증진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런던 올림픽의 일부를 NHK와 BBC가 8K급 초고화질 방식으로 시연했으며 NHK는 2020년 8K본 방송 도입을 목표로 지상파 전송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식 UHDTV 전송방식(DVB-T2)은 2009년 표준이 발표됐으며 미국 전송방식(ATSC 3.0)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지상파가 UHDTV를 상용화할 경우 단일주파수 방식의 유럽방식이 유력하나 미래부가 미국 방식이 개발될 때까지 표준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 김영석[MBC 기술관리부장] 발제문



지상파는 UHDTV서비스를 3단계로 나누어 준비하고 있다. 2015년 1/4분기까지 준비단계로 간이 실험방송을 통해 기술을 검증하고 인천 아시안 게임(2014년) 실험방송을 추진하며 한국형 지상파 전송방식과 표준을 완성하는 것이다. 2017년까지는 도입단계로 4K 시험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4K UHDTV 본격 상용화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계 방송하여 서비스의 고도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방송4사의 예산은 KBS가 2250억, MBC가 996억, SBS가 1003억, EBS가 635억 등 모두 48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홍대용[EBS 디지털인프라부 차장] 발제문



국가별 DTV 대역폭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DTV 주파수 대역폭이 가장 열악하다. 우리나라가 228MHz인데 비해 미국은 300MHz이다. 단일 주파수만을 사용하여 효율성이 30%나 높은 영국도 우리나라 보다 넓은 256MHz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산악지형과 건물의 환경이 복잡하여 많은 주파수가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통신사 주장대로 지상파 방송사가 무료로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다. 통신사들이 매출액 대비 평균 1.8%의 전파사용료를 내는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3~4%의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있다.

● 자문위원 토론 요지 ●

|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직접수신을 향상, 난시청 해소, 차세대 방송 등의 문제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기하는 700MHz 사용의 핵심 논리이다. 그러나 채널재배치가 끝나도 난시청과 직접수신 문제가 그대로 남는 상황에서 KBS가 차세대 방송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건 문제가 있다. 얼마 전까지 지상파 MMS로 좀 더 많은 채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고화질의 UHDTV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다른 논리로 말하고 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UHDTV가 상용화 된다면 저질 콘텐츠로 채울 것이 뻔한 케이블과 위성방송 보다는 지상파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UHDTV와 700MHz 주파수에 대한 더욱 정교한 논리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외부 인사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 논리의 문제점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DTV KOREA에서는 이 논의를 종합하여 하나의 틀과 논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사무총장 말씀처럼 저소득층에는 지상파 방송이 절실하다는 사례가 논증적으로 필요하다. 통신 쪽에서는 방송사가 주파수를 공짜로 쓰기 때문에 경제효율성 측면에서 떨

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주파수를 방송에서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효용성에 대해 충분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화질만 높이는 것 말고 다른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면 곤란하다. 무엇보다 저쪽이 가니까 우리도 가는 것이 아니라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이리저리하게 해야 하는데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방식이어야 한다.

| 정운식 [강원대학교 교수]



정부는 세금수입 확대, 삼성·엘지의 단말기 사업을 위해서 통신사의 주파수 확대를 원하고 있다. 또 케이블, 위성, IPTV에서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파수를 가져오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HD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하느라 재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UHDTV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지상파 밖에 없는데 케이블과 위성만 시작하고 지상파는 2018년 이후에 도입한다는 미래부 로드맵은 콘텐츠에 대한 전략부재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번 디지털 전환 때 지연이 되니까 정부가 굉장히 안달이 났고 지상파 DMB도 얻지 않았는가. 지금 정부 정책에 너무 따라가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문상현 [광운대학교 교수]

통신·경제학자들은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쓰던 주파수를 일단 뺏기기 싫으니까 자꾸만 입증되지 않은 논리를 만들어 낸다고 얘기한다. 때문에 96% 지역에서 잘 나온다고 난시청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논리가 모두 무너지므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파수 사용의 당위성을 가지려면 UHD TV가 언제쯤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상파가 UHD TV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 서비스가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당위성이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하나씩 따라가겠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일반 시청자들은 UHD TV에 관심이 없다. HD로 충분하데 왜 추진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물론 시민단체들은 지상파가 주파수를 확보하여 UHD TV를 하는 것이 통신사들에게 700MHz 주파수를 매각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화질로 인한 대화면 이외에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UHD TV 건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인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TV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 강혜란 [여성민우회 위원]



이 워크숍의 취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UHD TV와 주파수 문제를 쉽게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통하기 힘들 거 같다. 지금 지상파의 위기를 말하고 지상파가 주파수 논란에 휘말리게 된 이유는 지상파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위기를 타개하는 핵심정책은 UHD TV, MMS, 부가서비스 등 가릴 것 없이 플랫폼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 이어야 한다. 플랫폼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위태롭게 가면 정부에서 주파수를 회수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한다. 시민단체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다.

| 노영란 [매체비평우리 스스로 사무국장]



UHD TV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냐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UHD TV 서비스가 단순히 화질만 개선하여 화면의 크기만 늘리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면 주파수 할당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할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이렇게 낮은데 이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채널 도입 시급하다. 왜 논의가 나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방송사에서 이제는 수신환경 좋아졌기 때문에 안테나를 설치하면 잘 나온다는 홍보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와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DTV KOREA 소식

| 이정옥 신임 사무총장 취임



DTV KOREA 김환영 회장은 지난 7월 1일 이정옥 전 KBS 글로벌센터장을 DTV KOREA의 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앞서 전임 정화섭 사무총장은 KBS 제작기술센터장으로 인사발령됐다. 이정옥 신임 사무총장은 KBS 파리지국 특파원,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실 해설위원,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KBS 글로벌전략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 경상권 채널재배치 방송 및 신문홍보 추진

7월 17일 경상권 지상파 디지털 채널재배치 안내를 위한 방송과 신문광고가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됐다. DTV KOREA는 채널재배치 홍보를 위해 경상권 신문사 6곳과 광고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지역의 방송사들과는 채널재배치를 안내하는 광고방송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수 장윤정을 모델로 한 신문광고와 개그콘서트의 '나쁜 사람' 코너를 패러디하여 제작된 방송광고 동영상은 전라권과 경상권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DTV KOREA는 올 연초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채널재배치 홍보를 대행하여 수행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 경상권 채널재배치 현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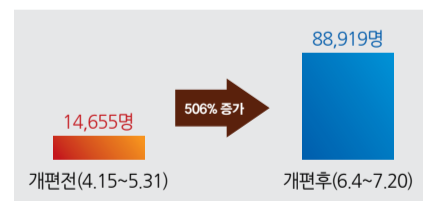
조현국 기획홍보실장이 심서준 사원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상권 채널재배치 지원을 위해 경남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현장을 다녀왔다. 디지털 전환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채널재배치 현장 지원은 대부분 노년층이 거주하여 도움이 필요한 농촌과 어촌 등 시골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 지원은 실제 채널재배치 홍보 보다는 안테나 설치와 TV 연결 단자의 수신 등 수신서비스 활동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DTV KOREA에 할당된 30여 가구는 모두 현장에서 바뀐 채널 번호로 변경하여 시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DTV KOREA 정기 이사회 개최



DTV KOREA(회장 김환영)는 지난 6월 14일 '제19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MBC 사장 교체에 따른 신임 이사를 예선하고 2012년 협회 결산을 확정하는 등 올 상반기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국 MBC 신임 사장이 김재철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새 이사로 선출됐다. 김종국 신임 이사는 1982년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LA 특파원과 경제부장, 정치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이사회는 이밖에도 201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DTV KOREA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고 정화섭 사무총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 등을 보고받았다.

| DTV KOREA 홈페이지 개편 후, 방문자 수 506% 증가



지난 6월 3일 DTV KOREA는 시청자들에게 지상파 플랫폼의 중요성과 안테나를 통한 TV시청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후 방문자 수가 506% 증가했다.

방문자 수가 증가한 원인은 이미지 기반의 콘텐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텍스트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내부 콘텐츠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페이지는 'DTV 수신환경 안내 가이드', '무료 디지털 방송 시청방법', '공시청 설비 지원 신청' 등이다. 특히 '공시청 설비 지원 신청' 페이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공시청 설비를 개보수하려면 팩스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DTV KOREA는 콘텐츠를 꾸준히 보강하고 시청자들이 편리하게 공시청 설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 세심한 배려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UHDTV와 700MHz, 지상파 다채널 수용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조현국
DTV KOREA 기획홍보실장

지상파 디지털방송 플랫폼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 답답하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2008년 3월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무렵만 해도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고화질과 다채널, 쌍방향 방송을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급격히 떨어지던 지상파 직접 수신율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정부가 유료방송 위축을 핑계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서 다채널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디지털 전환의 편익이 제공되지 않자 시청자들은 지상파를 철저히 외면했고 케이블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미디어 생태계를 지배하는 절대 강자로 등장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차세대 초고화질방송(UHDTV)을 둘러싼 미래부의 정책 또한 공공의 이익이 아닌 유료 매체 육성과 강화 쪽이어서 일반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UHDTV는 해상도가 1920x1080인 초고화질(풀HD)보다 4-16배 선명하고 음질도 10채널 이상의 입체 음향을 제공하는 차세대 방송기술이다. 따라서 UHDTV의 상용서비스는 점유율이 7% 내외까지 떨어진 지상파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미래부는 UHDTV를 위성·케이블 등 유료방송부터 시작하여 2015년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차세대방송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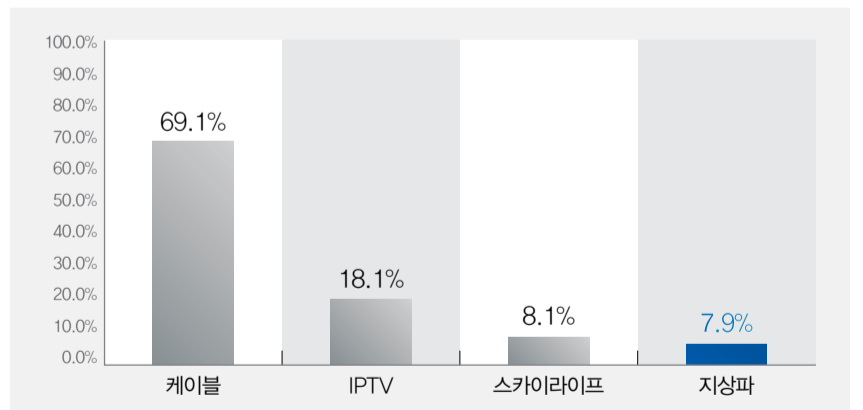
주파수,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주파수는 공공재이며 국민의 재산이므로 공공의 이익과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방송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파는 강력한 규제를 동반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급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도 일정수준 이상의 미디어 복지를 제공하며 유료방송의 과다한 팽창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 주파수의 공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한정된 방송부문의 주파수 자원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통신부문 사업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방송기술의 혜택은 지급여력을 갖춘 한정된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시청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지상파 다채널 도입, 국민 90%가 찬성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지상파 다채널 허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5월 동서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료 지상파 다채널 방송에 대해 조사자의 90.5%가 찬성했고, 2007년 방송광고공사에서 실시한 수용자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시청 설비가 개선되고 다채널 방송이 도입될 경우 시청가구의 30-40%가 지상파를 시청할 의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역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매체균형발전론'신봉자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여전히 지상파 다채널이 도입될 경우 케이블과 위성, IPTV 등 유료매체 사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2012년 발간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체시장 점유율은 케이블이 (69.1% 1,474만가구), IPTV가 (18.1% 525만가구), 스카이라이프가 (8.1% 334만가구)이고 지상파는 (7.9%)에 불과하다.

표. 2012년 매체 시장 점유율



미디어 정책, '무료 보편 서비스'가 근간이 되어야

미디어 시장의 규제와 육성은 분명하고 명확한 사회적 목적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줄 다양한 편익은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늘리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되어야 하는 점에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미디어 시장의 근간을 지탱하는 기본은 모든 시청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상파의 무료의 보편적인 서비스이어야 한다. 지급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